

동화책 속에서 발견한 성탄

임성미 · 마리아도미니카 살레시오 사회교육문화원 독서미디어교실 강사

동화 듣기의 행복함

매일 밤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다가 한 번은 “엄마에게도 좀 읽어 주라.” 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낭랑한 목소리가 마치 꿈결처럼 부드럽게 들려오면서 참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래서 아이들은 책 읽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렇듯 이야기 들려 주기는 학습 이전에 사랑의 행위입니다.

가끔 중학생들에게도 동화책을 읽어 주면 모두들 흥미롭고 기분 좋은 표정으로 열심히 듣습니다. 꼭 유명한 동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신문에 조그맣게 나온 훈훈한 인정미가 넘치는 미담 기사나 어떤 인물의 어린시절 이야기,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 겪은 이야기도 이야기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 자신의 어린시절 경험도 동화책 못지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도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 주는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했을 제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셨듯이 좋은 이야기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도 중요하지만 들려 주는 사람의 감정과 가치관이 듣는 이에게 전달되어 위로와 희망을 주는 치유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야기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들려 주냐에 따라 듣는 이의 행복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영상매체에서 움직이는 화면만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여전히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성서 이야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동화는 성서에 담긴 의미를 더 풍요롭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넘어 깨달음의 지평으로 안내하기

동화 수업을 위한 준비-동화 읽기 전략

흔히 동화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동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서 주제와 관련된 동화를 골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화를 들려 주기 전에 아이들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이끌어내어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들려 주는 중간에도 다음에 일어날 내용을 예측하는 질문을 한두 번 하여 이야기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려 준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을 다시 떠올리고 내용을 이리저리 따지고 해석하는 질문을 합니다. 동화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알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인물이나 마음에 들었던 인물의 행동을 찾아 나름대로 비판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동화와 성서의 의미를 연결짓고 요즘의 사회 문제와 연계하여 토론해 본다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화 수업> 성탄의 의미 찾기 ‘선물로 오신 예수님’

12월 25일은 로마의 달력으로 일년 중 가장 낮이 짧은 동짓날이었습니다. 로마의 아우렐리아누스 황제는 그날을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 이름을 붙이고 축제일로 정했습니다. 4세기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교회는 동짓날인 ‘태양의 탄생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했습니다. 이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 8, 12)라고 말씀하신 것과 통합합니다. 따라서 성탄은 세상에 구원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어진 기쁨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는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수업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성탄의 기쁨을 통해 탐색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래 프로그램을 직접 수업에 적용할 때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채택하기 바랍니다.

수업 안 1

주제 :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

학습목표

선물의 의미를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책 제목

벤자민의 생일은 365일 (쥬디 바레트 글/론 바레트 그림/정

혜원 옮김/미래M&B)

대상 : 초등 3~6학년



줄거리

벤자민은 생일날 친구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기뻐지만 1년 중에 하루만 생일인 것이 슬펐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포장하여 자기에게 선물을 한다. 벤자민은 이 일을 통해 자기 주위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다.

읽기 전 - 미리 생각하기/예측하기

- ① 생일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물건이나 이미지, 의미, 느낌 등)

- ② 생일이 기쁜 까닭은?
- ③ 왜 벤자민의 생일은 365일까? (자유롭게 예측하기)

읽으면서 - 다음 내용 예측하기/인물 행동과 심리 관찰하기

- ① 선물로 받은 새장을 포장하고 다음날 아침에 풀어 보았을 때 벤자민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 ② 다시 돌아온 생일날 벤자민은 지붕 위에서 무엇을 했을까?

읽은 후 - 내용 되새기기/추론하기

- ① 벤자민이 매일 밤 자기 물건들을 새로 포장한 뒤 아침에 풀어 본 까닭은?
- ② 벤자민이 365일 동안 기뻐던 까닭은 무엇인가?
- ③ 365일간 선물을 하면서 벤자민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 ④ 마지막 장면(자기 자신을 포장한 그림)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석하고 판단하기/창의적으로 생각하기

- ① 벤자민이 매일 생일을 맞이하기 위해 주변의 물건들을 스스로 선물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나?
- ② 집에서 늘 보던 물건이라도 근사하게 포장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

심화 및 활동

- ① 내가 만약 365일을 생일처럼 보낸다면 어떻게 지내고 싶은가? 하루 일과를 일기처럼 써 보자.
- ② 매일 선물을 포장한다면 내가 가진 물건 중에 어떤 것을 선물하고 싶은가? 왜 그런지 이야기 나누다.
- ③ 벤자민은 매일의 삶을 기쁘게 창조하였다. 스스로에게 매일 어떤 기쁨을 만들고 싶은가? (기쁘게 살기 위한 나의 십계명 만들기.)

④ 가장 소중한 선물인 '나의 탄생 신화'를 지어 본다.

성서와 함께 생각하기

- 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오셨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② 매일 기쁘게 살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무엇일까?
- ③ 내 주변의 소중한 물건들이나 사람에게 '감사의 글'을 써 보자.

수업 안 2

주제 : 나는 어떤 선물이 될까?

학습목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선물이 될 것인가를 탐색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

책 제목

항아리(정호승 지음/열림원)

대상 : 중학생 이상

줄거리

독 만드는 젊은이가 서툴게 만든 항아리는 외롭게 버려져 오줌독이 된다. 항아리는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늘 자신이 언젠가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을 소망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항아리는 절의 범종 밑에 묻힌 음관이 되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읽기 전 - 미리 생각하기/예측하기

- ①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나는 어떤 그릇일까? (그려보고 용도를 말한 다음 이유를 말한다.)
- ② 내가 만약 항아리라면 어떤 곳에 쓰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까?

읽으면서 - 다음 내용 예측하기/인물 심리 파악하기

- ① 젊은이는 무엇을 하려고 항아리를 땅에 파묻은 것일까?
- ② 절의 주지 스님은 왜 항아리를 종 밑에 묻었을까?

읽은 후 - 내용 되새기기/추론하기

- ① 항아리를 만든 젊은이가 처음에 못마땅한 얼굴로 항아리를 바라본 이유는 무엇인가?
- ② 오줌독이 되어 슬펐지만 나름대로 살 가치를 느낀 까닭은 무엇인가?
- ③ 항아리가 비로소 찾게 된 자기 존재의 의미이자 가치는 무엇인가?

분석 판단하기/창의적으로 생각하기

- ① 항아리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 것은 무엇이고 그 기다림 속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 ② 버려지고 잊혀진 채 외롭게 살면서도 항아리는 꿈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항아리를 통해 배울 인생의 자세는 무엇인가?

심화 및 활동

- ① “버려지고 잊혀진 자의 가슴은 아팠습니다.”에서처럼 나도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 ② “남을 위해 무엇으로 쓰일 존재라는 사실에 한없이 가슴이 떨려왔습니다.”처럼 여러분도 남을 위해 자신이 무엇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 ③ 향아리는 아름답고 소중한 그 무엇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했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나? 그것은 여러분 존재의 의미이자 가치를 느낄만한 일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의 목록을 10개 만들고 왜 그것을 바라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적어본다.)

성서와 함께 생각하기

- ① 향아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나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라고 말한다. 성모 마리아도 태중에 예수님을 모신 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고 노래하셨다.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도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찼던 순간이 있었는가? (마니피캣 노래를 들으면서 작업하면 좋다.)
- ② 성서의 인물 가운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기까지 시련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은 누구인가? (요셉, 모세 등) 그들은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였는가?
- ③ 황금은 불로 단련되어 보석이 되는 것처럼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에게 현재 시련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④ 향아리는 종소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음관 역할로 존재 가치를 느낀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직업 10개를 적은 다음 직업을 통해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눈다.)

※ 홈페이지 디다케 자료방에 가시면 위 수업안 외에도 <우리 형>(임영윤 지음)을 읽고 할 수 있는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